

5. 지옥, 법칙과 구속

-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 기독교 주장의 핵심

[] 부재 absence 반대와 실재 existence 반대

- 어두움은 실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빛이 없는 정도 즉, 빛의 부재 absence 를 나타내는 것일까?

부재 반대의 개념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예) 많다와 적다

어떤 것의 부재로 인한 반대가 아니라 실재하는 반대의 개념

예) 남자와 여자

- 남자의 부재 상태가 여자는 아님. 모두 실재하는 것.

·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것'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큰 차이가 있음.

·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빛을 창조했다면, 의도를 가지고 어두움을 창조한 것일까?

· 하나님의 의도는 오로지 빛의 창조였지만, 빛의 부재 상태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시간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 선과 악은 부재 반대인가, 실재 반대인가?

다의성 equivocation 의 오류(하나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오류)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위 논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평등'이라는 용어를 전제와 결론에서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

선과 악이 실재 반대임을 주장하는 다음의 논증

"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10,000 원을 주는 것은 선하다. 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100 원을 주는 것도 선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배고픈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은 악하다."

· 선은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
어떤 상황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만약 악이 실재 반대라면 우주의 두 힘을 설명하는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것.
- 악이 실재 반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
- 하지만, 악이 선의 부재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만을 창조한 것이며 무언가가 잘못 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곳 우주에 선의 부재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

[] 지옥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지옥은 천국의 부재상태

·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 상태에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이지만, 이 우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의미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절대선이 '좋았더라'고 한 상태
- 그런데 선의 부재상태를 인간이 가져와 버린 것

-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님.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절대 선, 절대 사랑이신 그 분과의 부재 상태를 지옥이라 부르는 것

지옥은 허튼 소리가 아님. 지옥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실재임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법칙, 구속

- 규칙과 법칙
- 법칙의 실재
- 중력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 법칙 Law 과 규칙 Rule.

-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칙 rule 들
 - 법, 사회법, 사규, 개인 원칙등
- 규칙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이므로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좌측통행'을 가르쳤음.

반면에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법칙 law 들이 있음.

- 대표적인 법칙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law of universal gravity 이 있음.
- 이 법칙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얻어진 것이 아님
-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님.
-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
- 중력의 법칙은 태어난 사람에게 작용했었고, 현재의 사람에도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는 작용할 것임

- 왜 우리는 힘들게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
- 왜 힘들게 공부해야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 왜 연습해야 할까?
- 연습한 후에 연습을 소홀히하면 왜 실력이 줄어들까?

반대의 세상

-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성적을 점점 더 잘 받는 세상, 연습을 소홀히 할 수록 악기를 더 잘 연주할 수 있는 세상!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 법칙의 결과 → "게으름"

이 우주에 "엔트로피 감소의 법칙" 이 작용하고 있다면!

-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점 더 의미가 있어지고 행복해 지는 세상!

-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음.

-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벗어날 수는 없음.

-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원죄, 로마서 7 장의 "죄의 법"은 이렇게 물리법칙으로 "변환"된 형태로 우리 우주에 존재

- 중력의 법칙이 실제 이듯이 "죄의 법칙"은 실제

-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음.

-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죄의 법"을 피할 방법은 없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선"

- 우리가 그 분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죄의 법"의 영향에 있으면 안됨.
- 금방 태어난 아기도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듯이 "죄의 법"의 영향을 받음.
- 그러므로 이 우주에 태어나 살았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
-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있을 수 없음.

죄의 법을 거슬러 싸우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

·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가 얼마나 거슬러 싸웠느냐?"를 보시는게 아니라, 니가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났느냐를 보심.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

·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함.

[]자연법 Law of Nature

cited by C.S Lewis Mere Christianity

-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
-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

-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름.
-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
-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네 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름.
-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
-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것).
-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말하는 제 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

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음.

-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 낼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음.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우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음.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임.
-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 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음.

결론: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

[]이 법칙의 실재성

'바른 행동의 법칙' 은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음.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한 종류의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

·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재하는 무언가-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재적 법칙-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 *유물론적 관점*

- *유신론적 관점*

-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

-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

-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 만일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 낸 실재이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을 통해서만 찾아 낼 수가 없음.
-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우리의 내부에서 느끼는 자연법)

[]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
- 반면에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

-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음.
-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cited by C.S Lewis Mere Christianity

[] 죄의 법칙 law 을 벗어 나는 방법.

노아가 어릴 때 색 color 이라는 추상 명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

"아빠 네모는 무슨 색이야?"

- 대답 불가능한 질문.
- 이러한 불가능을 본질적인 불가능

예) "빛을 비추지만 그림자는 없게"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불가능의 범주에 속하는 것(부재 반대를 없애 달라는 주장).

하나님께 본질적인 불가능이 있음

1) 절대 선

2) 절대 사랑

- 하나는 죄의 법칙 아래에 있는 피조물을 대가 없이 용서하는 것
- 다른 하나는 나(우리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한 상황

- 죄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므로 심판하지 못하는 상황.

지옥은 허튼 소리가 아님.

-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는 순간 그곳은 더이상 지옥이 아님.
- 우리가 받을 심판은 영원한 형벌, 지옥.

누군가가 죄의 댓가, 즉 사망을 지불하면 우리는 죄의 법칙으로부터 해방.

- 하지만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사람 중에는 해결자가 없음.
-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됨.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

·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그리고 죽는 것

→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